

동네방네

담양군, 신종 코로나 방역에 '온힘'

담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고 인근 광주광역시에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 행정력을 동원해 탄탄한 방역체계를 유지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군은 군민과의 대화를 잠정 연기한 데 이어 정월 대보름 행사,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대중집합행사를 취소하고 병원체 유입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보성군, 소규모 공공사업 설계지원단 발족

보성군은 2020년도 주민참여 사업 설계 지원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설계 지원단은 군 도시개발과장을 단장으로 본청과 읍·면 시설직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정비 ▲용배수로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등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170건, 총사업비 50억 원에 대한 현지측량 및 자체 설계 작업에 투입된다. 보성군은 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



보성군, 2020년도 소규모 공공사업 설계 지원단 운영

고 3월 중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인 5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남=문성환 기자 m8527188@

곡성, 촌촌 그물망복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곡성군이 그물망복지 체계를 구축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 곡성군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위기가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실업 및 한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시작했다.

현재까지 502명을 대상으로 위기사유를 확인하고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107명에게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급여를 제공하거나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했다. 또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46가구를 통합사례대상자로 선정해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화순군, 4개 읍·면 1994농가에 토양개량제

화순군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 토양의 개량을 위해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공동살포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화순읍, 한천면, 춘양면, 이양면 등 4개 읍·면 지역 농가로 최근 공급 대상 농가를 확정했다. 군은 4개 읍·면 1994농가에 춘기분

토양개량제를 공급한다. 규모는 총 469ha에 규산 1924t, 석회 553t, 패하석 415t을 공급한다. 해당 지역 읍·면행정복지센터가 14일까지 공동살포단을 구성해 공동살포를 요청하면, 1포당 800원의 살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김태수 기자

오늘의 날씨: 2월 7일 (금) 음력: 1월 14일. 수도권 날씨: -7~-3°C. 전국 날씨 지도: 연천 -11/2, 동두천 -10/3, 가평 -10/3, 파주 -12/2, 서울 -7/-3, 양평 -8/3, 용인 -5/3, 평택 -9/4, 인천 -6/2, 수원 -5/3, 백령도 -3/4.

광주 광융합산업 성장세 좋다!

지역매출 2.4조 고용 2.9% ↑

작년 매출액 7.7% 증가율 매출 100억이상 기업 37개 광통신 분야 매출 5165억

광주지역 광융합산업의 성장세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시는 6일 2019년도 광주지역 광융합산업 통계 조사·분석 결과 매출액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통계 분석에 따르면 광주지역 광산업의 매출액은 2조4787억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고용인원은 7802명으로 전년 대비 2.9%, 기업 수는 284개사로 1.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매출액은 지난 2014년 12.8%, 2015년 4.7%, 2016년 4.6% 각각 감소했으며 2017년부터 소폭 증가해 지난해 7.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100억원 이상 매출액을 달성한 광융합산업 기업 수도 지난 2018년 27곳

에서 지난해 37개사로 37%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광통신 분야 매출이 516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했으며 광원 및 광전소자 분야 1조365억원(11.4% 증가), 광학기기 분야 6140억원(4%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광통신 분야는 5G기술 상용화로 가장 높은 매출액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피피아이는 지난해 12월 2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광융합산업은 지난 2000년부터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13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대내외 여건 변화로 매출이 급락했었다.

지난 2018년 9월 '광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광주시는 2019년을 광융합산업 제도약 원년으로 선포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광주시는 광기반기술 연계 광융합

산업 고도화 등 적극적인 국비 발굴을 통해 광융합 기술 활용 기업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광ICT, 광의료 등 기술집약형 미래 신산업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치선 광주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2019년 광융합산업의 성장은 제도약의 마중물로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다"며 "이를 발판으로 삼아 광융합산업을 4차 산업혁명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광주시청 전경

“요리가 즐거워요” 주꾸미로 사랑 나눔

이숙재 '신선주꾸미' 대표 "지역민 덕분에 자리잡아 보답"

지난 2일 일요일 점심. 영종국제도시 운서역 근처 맛집거리에는 신선주꾸미 가게에 30명 남짓한 흥은 동네 어르신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날 자리는 공향철도 운서역 2번출구 맛집거리



이숙재 대표

(사진)가 마련한 것. 부평에서 오랫동안 같은 상호에 식당을 운영하다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운서동 맛집거리로 들어온 지 이제 1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한 적도 없는데 알음알음 손님들이 찾아와 꽤 알려진 맛집이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 덕분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작은 정성이나마 보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동네 어르신들을 대접해 드리기로 했어요."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은 휴무일인데 쉬는 이 날을 잡아 어르신 대접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인근에 아파트 경로당과 노인정에서 오신 어르신은 60여 분. 홀이 가득 차 손님을 받을 수도 없었

지만 쉬는 날에 문을 열어 식사대접을 하는 일이 쉽지 만은 않은 일 같았다.

맛있게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이 가게를 나서면서 이숙재 대표에서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어제부터 호박죽을 끓이고 잡채와 목을 췌었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가 음식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일단 재료가 좋아야 해요. 고추도 직접 말리고 야채도 싱싱한 것으로 직접 골라오지요. 준비한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요리가 즐겁다는 이숙재 대표. 앞으로 일 년에 몇 번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해 음식을 대접해 드리겠다고 한다. /인천취재본부=김정근 기자 mirex@

광주시, '드림팀' 등 탄탄한 창업제도 구축

(분야별 멘토링)

올해 창업지원 추진 계획 본격 추진 창업 지원 수행기관 분리 집중 공략 기술·패키지·판로개척 지원 신설

광주광역시와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5일 수립한 '2020년 창업지원 추진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2020년 창업지원 추진 계획은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한 탄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 준비부터 실행, 성장 등 맞춤형 지원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기존 창업지원 트랙 강화, 창업전·후 창업자의 능력배양, 다각적인 창업지원 시도와 창업생태계 기반 확대 등이다.

먼저 창업 3년을 기점으로 수행기관을 분리, 집중 관리해 효율적인 창업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또 지난해부터 창업희망자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 진단 및 사업화 방법 등을 사전에 멘토링한 '창업드림팀'을 기술·경영·마케팅 등 7개 분야로 강화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창업이 실행되도록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과 숙련된 기술·경험을 가진 중장년으로 구성된 세대융합팀 중장년 2팀을 신규 선발한다.

아울러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에 대해 수요자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과 패키지 및 판로개척 지원을 신

설하고,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지원도 시도할 계획이다.

창업에 재도전하는 예비 재창업자에게는 최대 25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이 좋은 창업 3년 초과 우수 창업기업에 대해 최대 5000만원도 지속 지원하며 전담매니저가 사업화 과정을 직접 관리한다.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에게는 저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2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운영하고, 기업 성장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광주 청년창업지원펀드와 250억원 규모의 달빛혁신창업성장지원펀드를 지속 운영한다.

특히, 광주시는 2022년까지 창업지원시설, 지원기관 등을 한 곳에 집적화한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는 등 건립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